

1. 서언

갱년기 여성의 문제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의학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받고 있는 갱년기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갱년기 장애 증상의 일환으로서의 골다공증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과 골다공증에 대한 예방적 치료방법인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에 적응증, 이점, 위험성 및 투여방법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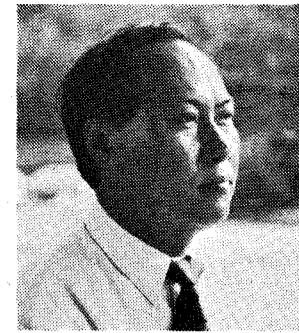
2. 폐경시기

갱년기는 폐경을 전후한 난소기능의 쇠퇴로 인한 생리적인 시기를 의미하며 이는 수태 가능시기로부터 수태 불능의 시기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폐경의 정의는 40세 이상의 여성에서 6개월 이상 월경출혈이 소멸된 경우를 말하며 폐경 2~10년전부터 서서히 월경주기가 비정상적으로 불규칙하게 되거나 연장되면서 시작된다고 여겨진다. 월경 간의 간격이 20대에는 27.8일, 30대에는 27.2일, 40대에 들면서 26.2일로 단축된다. 폐경의 발생연령은 48~52세 사이로 생각되며 갑브렐(1982)의 연구결과는 49.1세 한국에서는 민 등(1983)의 연구에 의하면 각도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서울 지역의 경우는 폐경의 평균연령은 48.8세 이었으며 46~49세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경의 시작연령으로는 5%는 45세, 80%는 50세이었으며 평균연령은 47.6세이었다.

3. 골다공증의 정의

골다공증이란 골량의 감소로 인하여 근골격계의 물리적인 힘을 감소시키어 골절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갱년기 이후에 일어나는 섬유주골의 골밀도의 감소를 골다공증의 제 1형이라고 한다.

4. 골다공증의 병태생리



임 용 태

<가톨릭의대교수>

1) 골다공증의 발생빈도
미국의 경우 갱년기 이후의 여성에서 순환기계통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5만명 인데 반하여 골다공증으로 인한 사망이 매년 7만명에 이른다는 점은 갱년기 여성 건강의 의학적 처치에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하겠다. 향후 30년 간을 예측한다면 55세 이상의 갱년기 여성의 현재인구의 배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미국, 스웨덴, 영국의 경우는 환경적인 인자로 인하여 매 10년마다 갱년기 여성에서의 골절의 빈도가 30%씩 증가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미국의 경우는 현재 매년 25만명의 갱년

한 과정으로 갱년기 이후의 여성은 3가지 형태의 골절이 다발하게 되는데 이는 척추 골절, 고관절 골절, 前腕骨骨折를 포함하게 되며 흔히 고관절 골절이 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척추 골절이 더욱 흔한데 척추 골절은 그 과정이 상당히 무증상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안정 외에는 혁수를 압박하기 전에는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학적 관심을 끌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적은 것으로 여겨지나 실제의 발생빈도는 척추 골절, 고관절 골절, 前腕骨骨折의 순서로 다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골다공증에서의 에스트로겐의 역할

에스트로겐 배합체인 푸레마린 0.625mg/1일의 용량은 골다공증에 대한 최소 억제 용량으로 골기관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골의 무기질침착(礦化作用)의 항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는 경로이나 이는 골모세포에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최근 3년전에 처음 발견되어 현재 이 기전에 대하여는 연구 중이다. 또한 에스트로겐은 골형성에 관여하는 종양성장인자베타 및 인슐린성장인자를 통한 기전이 있으며 골흡수 기전에는 푸로스타글란딘 E₂ 및 인터루킨 1이 연관되며 인터루킨 1이 증가되면 골흡수를 증가시키고 인터루킨 1이 감소하게 되면 골흡수를 억제하게 된다. 에스트로겐은 또한 비타민D의 이화작용에도 관여하여 비타민D를 활성화하여 장에서의 칼슘흡수를 촉진하게 된다.

5. 골다공증의 진단

골다공증의 진단은 골밀도의 측정으로 객관적인 진단이 이루어 지며 골밀도 검사는 흉부 X-선 사진 촬영시의 1/10의 방사선 조사량으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의 개별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는 개인에 따른 약물의 흡수가 다르며,

둘째는 환자 개인의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의 효과는 개개인의 체내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좌우되며 되므로 치료 약제 및 기간의 선택에서는 개별화가 필요하다. 일례로 골조소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행한다면 혈중 에스트로겐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소한 10년 이상을 투여하였을 때에 예방목적의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갱년기의 생리적인 현상으로는 폐경기 여성에의 안면홍조는 갱년기 증후군의 특징적인 중요증상으로 85% 여성에서 경험하게 되며 이를 중의 반수는 2년 내의 기간 동안 폐경기 안면홍조를 느끼게 된다. 모든 폐경기 여성의 25% 만이 의학적인 치료를 요할 정도로 자각증상이 지속하게 된다.

2) 금기증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의 절대적인 금기증으로는 급성 혈관혈증 및 색전증, 심장맥관질환, 에스트로겐의 존성인 유방, 자궁 및 신장종양, 간질환 혹은 간기능 이상, 악성 흑색종, 포르피린증, 원인 미상의 질출혈, 유방암, 흙생증, 자궁체부암의 병력이 있는 경우이며 상대적 금기증으로는 에스트로겐 제제에 대한 알레르기, 담낭염 혹은 담석증, 음혈성 심장부전증, 자궁내막증, 가족성 고질질증, 고혈압, 자궁근증, 혀장염, 정맥성 혈전증의 병력, 관상 혈관질환 및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이다.

3)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 치료전의 검사

에스트로젠이 부갑상선 자극 칼슘증가 골량 감소로 근골격계의 힘 감소

기 여성에서의 고관절 골절 발생빈도는 서기 2020년 경에는 매년 100만명으로 증가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갱년기와 골다공증

갱년기 전후의 여성호르몬 결핍은 척추의 25%를 차지한 纖維住骨에 주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지속적인 광물제거를 유발하게 되어 족먹은 것 같은 脊椎體를 초래하여 압박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5~6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척추체를 더욱 압박을 하게되어 압박 골절을 초래하게되어 身長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

진도 가져오게 되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연구에 의하면 에스트로겐 보충 요법을 받은 갱년기 여성에서 치료받지 않은 군보다 척추 및 대퇴골의 골밀도가 각각 18% 및 12%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스트로겐은 골흡수에 대한 부갑상선호르몬의 작용에 대하여 길항작용을 하거나 부갑상선에서의 칼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여 혈중 칼슘 농도를 보전 및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하나의 기전은 골모세포에

로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소요시간은 3~4분에 불과한 시간 내에 척추의 골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다.

6.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

1) 적응증

골다공증의 예방적 치료, 심맥관 질환의 감소, 안면홍조 및 위축성 질염과 같은 갱년기 장애 증상의 치료를 적응 대상으로 하며 치료약제의 선택에 있어서는 환자 개인에 따른 개별화가 필요 하며 폐경 3~5년 이내에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작

국민건강생활지침

1. 식사전에는 손을 씻고 식사후에는

이를 닦읍시다.

2. 음식은 제 때에 싱겁게 골고루 먹읍시다.

3. 행주와 도마는 삶거나 햇볕에 말려서 씁시다.

4. 쓰레기통은 뚜껑을 덮고 주위를 깨끗이 합시다.

5. 예방접종과 건강진단은 때 맞추어 받읍시다.

6. 지나친 담배와 술을 삼갑시다.

